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임 종 순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

지도 김 수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임 종 순

임종순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년 12월 일

감사의 말씀

저의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임상실무에서 쉬이 이용하도록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종종 걸음으로 뛰어 다녔던 2년 반이 이렇게 쉽게 지나갈 줄 미처 몰랐습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김수 교수님과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순복교수님, 권자영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늘 격려와 용기를 주시며 학문의 길을 안내 해주신 이상미 간호담당부원장님과 잔잔한 미소로 저의 부족함을 품어 주시는 손주온 수석부장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행복 바이러스를 듬뿍 전하며 에너젠이 되어준 오현숙파트장,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힘과 용기를 주며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김순희 파트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훈훈한 미소와 넉넉한 마음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는 김경희 팀장님을 비롯하여 어린이병원 모든 파트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지만 대학원 생활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동기생들, 통계로 어려울 때 밤늦게 까지 함께하며 수고하신 권인숙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만실 간호사와 67병동 간호사님들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남편의 자리를 지키며 늘 바빠 생활하는 아내의 빈자리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남편 예명선씨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사랑하는 딸 승인
이, 한창 부모 곁에서 투정만 부릴 어린나이에 엄마 곁을 떠나 멀리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대견한 아들 승재에게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하늘과 같이 넓고 커다란 사랑으로 배풀어 주신 친정 부모님,
오랜동안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어머니와 그녀의 뒷바라지로 고생하시는 아버지
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마칩니다.

2008 년 12 월

임 종 순 올림

차 례

표 차례	iii
부록	iii
국문요약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가설	3
4. 용어의 정의	3
II. 문헌고찰	5
1. 부성애착	5
2. 부성 애착증진을 위한 중재	10
III. 연구방법	11
1. 연구 설계	11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11
3. 연구 도구	12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5
5. 자료 분석 방법	18

IV. 연구 결과	19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9
2. 가설 검정	2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 정도 검정.	25
4. 추가분석.	27
V. 논의	28
1. 대상자의 특성과 부성애착	28
2.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	29
3. 부성애착의 측정시기	32
4. 원부성애착과 부성애착과의 관계	33
VI. 결론 및 제언	34
1. 결론	34
2. 제언	36
참고문헌	37
부록	41
영문초록	48

표 차 례

표 1.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	16
표 2. 대상자의 인구학적 동질성 검증	20
표 3.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 동질성 검증	21
표 4. 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 동질성 검증	22
표 5.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유무에 따른 부성애착 속성별 차이 검증	23
표 6. 원부성애착과 부성애착	24
표 7. 원모성애착과 부성애착	24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정도 비교	26
표 9. 대상자의 임신 및 분만관련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정도 비교	33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 설계	11
-------------------	----

부 록 차 례

부록 1.	41
부록 2. 설문지	42
부록 3. 피험자 서면동의 설명문	46
부록 4. 피험자 동의서	47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분만직후 신생아와 아버지 사이의 감각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대조군 사후 실험 연구이다.

연구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Y 대학 부속병원에서 분만한 신생아의 아버지로, 입원당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62명 중 자료 수집 기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감각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은 박혜란(2008)의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한 것으로, 실험군 신생아 아버지에게 훈련된 간호사 5인이 통상적 간호와 함께 분만직후 30분 이내에 10분간의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대조군에 속한 신생아와 아버지에게는 통상적인 간호만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산과 병실 간호사가 분만 후 24시간 시점에 대상자의 실험군과 대조군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2.0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 동질성 검증은 χ^2 -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부성애착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일반적인 특성과 임신 및 분만관련 특성을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은 아버지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64$, $p=.32$).

셋째,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성애착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1가설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성애착 점수가 높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t=.12$, $p=.90$).

넷째, 원부성애착 정도에 따른 부성애착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이 그렇지 보다 부성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제 2가설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은 부성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채택되었다($t=2.35$, $p=.02$).

다섯째, 원모성 애착 정도에 따른 부성애착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3가설 '원모성애착이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은 부성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chi^2=1.37$, $p=.175$).

본 연구에 따르면,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대상자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외에도 부성애착 측정시기의 문제도 관련요인으로 추측되어 진다.

본 연구결과는 일 개 대학의 신생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대상자수를 확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효과적인 부성애착 측정 시기는 본 연구가 실시한 시기 외에도 측정시기 및 횟수를 늘려 측정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덧붙여 감각적 접촉프로그램의 효과입증을 위해서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 양육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강남미, 1985; 김지영, 1994). 이숙현(1995)은 현대 가족에서 좋은 아버지란 자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며,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아버지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친구같은 아버지, 자녀 교육에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공유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며 스스로 택하는 아버지를 지칭하는 프렌디(friend와 daddy의합성어)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현대의 남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부터 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와 아버지의 역할수행 및 아기와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정보와 지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아기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모성에게 더 많이 부여시키게 되고, 이러한 책임의식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건강한 모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건강한 부성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rown, 1986; 임정아, 2002).

아버지 역할은 직접경험을 통하지 않고 모방을 통해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아동기 시절이후 아버지로부터 역할모델을 학습하게 된다. 즉 아버지의 실제 양육활동은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박성연, 1996; 허선다, 1992). 또한 부성애착은 모아관계 만큼 강할 수 있으며(Greenberg & Morris, 1974), 아기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은 아기의 탄생으로 생길 수 있는 가족의 역할과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감을 줄일 수 있고, 아기와 가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Bowen & Miller, 1980).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는 분만과정에 단

순한 참여하는 수준이 아닌 산부가 경험하는 분만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장해오고 있다(May, 1982).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왔다. Ferketich과 Mercer(1995)은 태아애착, 분만시 경험 등이 아버지의 애착과 역할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여, 아버지역할 수행과 자신감에 있어서의 초기발달과 애착사이에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강남미(1985)는 아버지의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신생아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출산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정서적인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므로 조기에 아버지와 아기유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Cronenwett, 1974). 이렇듯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일생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 아버지가 부성애착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분만과정을 경험하고자 하여도,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참여하면 아내의 분만에 불안해하고 당황하며 아내의 손만 잡고 있다가 태어난 아기를 멀리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실정이다.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국내의 경우 박혜란(2008)이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임상중재를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여 분만 직후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으나 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새로운 아기와의 애착관계만을 살펴보았을 뿐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이 현재 아기와 애착형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 자신의 부모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신생아와의 부성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아버지의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아버지 자신의 부모와의 유대가 신생아의 부성애착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제 1가설: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성애착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2가설: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은 부성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가설: 원 모성애착이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은 부성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

감각적 접촉은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시각적, 촉각적, 언어적 접촉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분만 30분 이내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기 손, 발가락, 성별 등 신체 곳곳 확인하기, 아기의 태명 부르기, 아기 안아보기, 닦은 부분 찾아보기의 감각적인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2) 부성애착

부성애착은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표현이나 반응, 행동 및 지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Greenberg와 Morris (1974)의 이론을 참고로 신생아에 대한 시각적 인식, 촉각적 인식, 아기의 특성 구분, 완전한 개체로 인식, 강한 관심과 애정, 심리적 고양감, 아버지로서의 역할인식 정도의 범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뜻한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강함을 의미한다.

3) 부모와의 유대

부모와의 유대란 자신의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면서 돌봄 정도에 대한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원모성애착과 원부성애착을 의미한다.

원부성애착이란 자신의 아버지와의 애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유대 도구(Parker, 1979) 돌봄 영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강함을 의미한다. 원모성애착이란 자신의 어머니와의 애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유대도구(Parker, 1979) 돌봄 영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강함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부성애착

애착(attachment)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로 형성되는 감정적인 관계로서 출생 후 수일 이내인 민감 시기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애착적 결속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결속은 영원히 지속되고 이 과정의 성패는 부모로서의 능력을 결정짓는 결과를 초래한다(Bowen, 1980). 애착(attachment)이라는 용어는 Bowlby(1969)에 의해 “인간이나 동물이 얻는 특정 개체에 대해서 형성하는 애착적 결합” 이라고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애착의 목적은 근접을 강화하며 접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처럼 애착 이론을 통해 초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던 Bowlby(1988)는 부모의 반응적이고 유용하며 민감한 반응은 유아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아버지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성구별적 부모 역할 수행에서 부부공동의 관심으로 자녀양육의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부성과 모성의 구별이 모호해진 양성적 부모역할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보는 영역은 돈을 버는 일, 처벌담당,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며, 자녀교육의 책임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이라는 견해와 부모가 똑같은 정도로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양명숙, 1993; 이인길, 1992), 즉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어졌던 많은 역할을 아버지가 공유하거나 혹은 분담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다(최혜숙, 1997).

Reirner와 Wilson(1991)은 아버지역할로 지위부여, 생계유지, 보호, 보살핌, 인격형성 등 5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아버지 역할이 근간이 되는 영아 출생시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아에의 열정은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영아돌보기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영아기의 부모 역할로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 기본적인 신뢰감형성, 상호성의 발달, 영아자극이 포함된다고 하였다(김영희, 1998).

역할이란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체제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 지워진 요구, 규범, 기대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남성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게 되면 아버지라는 위치에 서게 되고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요구나 기대에 의해 적절한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이라는 부모역할의 한편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지영, 1998). 아버지 역할은 직접경험을 통하지 않고 모방을 통해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아동기 시절이후 아버지로부터 역할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 즉 아버지의 실제 양육활동은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박성연, 1996; 허선다, 1992).

한편 영아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가 되기 위한 능력관련 자신감은 임신동안 아버지의 정체성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Soul, Standley & Copan, 1979),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아애착, 분만 시 경험 등이 아버지의 애착 및 역할자신감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역할수행 자신감의 초기발달과 애착사이에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제시했다(Ferketich & Mercer, 1995). 즉,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역할수행과 만족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역할수행을 잘하면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andura A, 1977). 따라서 처음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신감을 형성하는 이전의 관련 경험 등이 긍정적으로 지각되거나 또는 관련기능이 격려되었다면 영아와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상호 호환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의 적극적인 참여는 신생아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화시키며 아버지 자신의 역할적응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다(Abelin, 1975; 강남미, 1988). 그 외 아버지의 영아 돌봄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기 준비에 대한 인식, 아버지 역할의 근간이 되는 영아출생시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아에 대한 관심이다. 따라서 아버지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과정에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하다(Phillips, 1978).

임신기간동안 태담 등 만족스러운 경험은 아버지에게 태아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아버지-태아와의 상호 회환작용으로의 애착이 증진된다. 생애 초기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관계는 인간 최초의 사회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이후 아이의 심리, 발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69, 1982; Parke, 1987).

Liu(2006)는 일차적인 애착 인물로 특히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양상이 어머니와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모델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애착은 여전히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aterson et al, 1995).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있고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Armsden & Greenberg, 1987).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도 계속되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양육자와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라면서 계속 발전되어 새롭고 낯선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탄탄한 근간이 되어(Ainsworth, 1989; Bowlby, 1982)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후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Styron & Janoff-Bulman, 1997).

May(1982)는 임신에의 정서적 참여가 아버지역할준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였고, Leonard(1976)는 임신의 계획성이 아기에 대한 아버지의 의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Donovan(1995)는 예비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예비아버지는 태아를 실제자신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 시키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태아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부모기 준비에 대한 인식, 부부단결, 배우자취업, 산전 교육 참여 등은 아버지역할에의 이해를 돕고, 아버지 역할을 수행시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켜주며 자신의 아내와 아기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lkovitz, 1998). 부성애착은 모아관계만큼 강할 수 있는데(Wieser & Castiglia, 1984), 이는 부성애착 행위가 모성애착 행위보다 사회적 또는 신체적인 놀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관찰가능하다(Bowen & Miller, 1980; Field, 1978; Golinkoff, 1979).

최근 연구에서 아버지가 아동의 성역할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도덕성발달,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Earls,1976),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아동기 이전에 결정된다.

애착정도에 관한연구를 살펴보면 Greenberg와 Morris(1974)는 아버지가 분만을 관찰했을 때가 자신의 아기에게 갖는 동일시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하면서 첫 3일간 아버지와 신생아의 접촉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차은주(1985)의 연구에서도 초기 접촉이 부성애착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부성애착도 모성애착과 더불어 시간을 초월하며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Mercer et al., 1988). Bowen과 Miller(1980)의 연구에서도 분만을 관찰한 아버지가 분만을 관찰하지 못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회적 애착행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아버지가 산모와 함께 출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애물을 제거한 출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좋은 느낌과 즐거움으로 분만과정을 겪은 아버지 일수록 자신의 좋은 느낌을 유지하여 아기와 의 상호작용을 지나 불유쾌한 분만경험을 한 아버지의 경우는 그때의 불쾌감을 피하기 위하여 아기와 의 접촉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가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할수록 아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인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Peterson, 1979).

한편 영아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가 되기 위한 이들의 능력과 관련되는 자신감은 임신동안 아버지의 정체성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Soul, Standley & Copan, 1979). 강남미(1985)와 차은주(1985)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산전간호에 참여할수록 높은 애착행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버지

의 아기에 대한 애착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부아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애착적 인식을 예견하는 중요변수가 출산과정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나 참여이다(김지영, 1994).

이상에서 부성애착은 부아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이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고찰 되었는데, 부성애착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기와 의 조기접촉, 임신계획성유무, 원하던 자녀수, 결혼만족도, 신생아 성별, 분만형태, 분만참여여부 등이 있다.

2. 부성 애착증진을 위한 중재

출생 직후 조기접촉을 통해 형성된 애착은 영구적이며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영아의 성장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Klaus & Kenne, 1976). Mussen(1973)은 그 최초의 경험은 성장 후 성격과 적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Greenberg와 Morris (1974)는 분만 참여한 군과 참여하지 않은 군을 나누어 분만 참여군이 신생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냄을 보고 하였다. Bowen(1980)은 부성애착 행위로서 아기를 바라보는 것, 소리내어 얼러보는 것, 아기를 바라보고 웃는 것, 만져보는 것, 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맞대보는 것, 안아보는 행위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행위들은 신생아에게 근접과 접촉을 보여 주는 모든 부모에게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관찰 가능한 행위들로 알려져 있다(Cropley, 1976)

인간이 다른 인간과 접촉할 때 먼저 시각적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대방과 소통한 후 피부접촉을 하게 된다. 효과적인 접촉을 위해 먼저 신생아를 관찰하는 시각적 접촉을 하게하고 신생아를 불러보는 언어적 접촉 후 신생아를 안아보는 촉각적 접촉을 하였다. 감각적 접촉시 대상자와 신생아의 닮은 부분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감각적 접촉의 효과를 높였다.

분만 직후 또는 수유실에서의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연구결과, 접촉이 애착증진에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이자형 & 김진향, 1981; 박혜숙, 1983; 성미혜, 김미경 & 윤희자, 2005; 임은숙, 2003; 최인희, 1986). 그러나 부성애착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적용한 국내 연구는 미숙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박시영(2003)의 연구와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박혜란(2008)의 연구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두 연구는 제한적이어서 정상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재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할 필요성이 고찰 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분만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감각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조군 사후 실험연구로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실험처치	사후 측정
실험군	X	Y_E
대조군		Y_C

※ X : 분만직후 30분 이내의 감각적 접촉프로그램

※ Y_E , Y_C : 분만후 24~48시간에 측정한 부성애착, 부모와의 유대(원부성애착, 원모성애착), 일반적 특성

< 그림 1. 연구 설계 >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제태기간을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한 후 다음 선정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확인 하였다.

- ① 제태기간이 37주 이상, 5분 APGAR 8점 이상, 신생아 체중 2500g 이상의 정상 신생아의 아버지로서
- ②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신적 질환이 없으며
- ③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Y의료원에서 2008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 분만한 정상 신생아의 아버지 64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2명의 신생아 아버지를 제외하고 연구 대상자는 총 62명 (실험군 32명, 대조군 30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부성애착

부성애착은 Greenberg과 Morris(1974)의 아버지 애착의 7가지 특성에 근거하여 김지영(1994)이 개발한 총 35문항 중 20문항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일부 용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성애착도구는 다음의 7속성별 범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범주에 1~4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 ① 시각적 인식(Visual Awareness)
- ② 촉각적 인식(Tactile Awareness)
- ③ 아기의 특성구분(Awareness of Distinct Characteristics)
- ④ 완전한 개체로 인식(Perceived as Perfect)
- ⑤ 강한 관심과 애정(Strong Feeling of Attraction)
- ⑥ 심리적 고양감(Experience of Extreme Elation)
- ⑦ 역할 인식(Role Perception)

본 연구 도구로 부성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사하기 위해 모성 간호 전공 교수 2인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구한 결과 우리나라 아버지의 민감성과 신생아 양육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20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20개 문항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의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부정적 문항 4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애착정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점수화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애착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였으며(김지영, 1994),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 부모와의 유대

연구 참여 신생아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자가 평가는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가 수정한 부모유대질문지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중 송지영(1992)이 번안한 도구 중 돌봄 영역에 해당되는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Parker(1979)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돌봄과 과보호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25문항의 PBI를 개발하였다. 원도구의 하부영역인 돌봄 영역의 12문항 중 문화적 정서 차이와 표현의 중복을 고려하여 10문항을 선정하여 동일문항으로 16세 이전 부모의 양육 태도를 근거하여 자신의 아버지와의 유대는 원부성애착, 어머니와의 관계는 원모성애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와의 유착도구 10개 문항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아주 그랬다”의 3점부터 “전혀 안 그랬다”의 0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부정문항 2문항은 역환산 하였다. 애착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 점수화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송지영, 1992) 본 연구의 원부성애착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원모성애착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다.

3) 일반적 특성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신과정 특성 및 일부 분만관련 특성은 의무 기록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교육정도, 직업상태, 가족형태와 결혼기간, 결혼형태 등 총 7문항을 조사하였다. 임신관련 특성으로는 임신계획여부와 출산 준비 교실 참여 유무와 태담 등 3문항을 조사하였다. 분만관련 특성은 분만 참여 유무, 신생아의 성별과 기대성별, 모자 동실 사용유무와 함께 아기를 처음 본 시간을 조사하였다.

4)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게 실시된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은 분만 30분 이내에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간의 접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은 시각적 접촉 2분, 언어적 접촉 2분, 촉각적 접촉 4분, 신생아와 대상자간 닮은 부분 찾기 2분씩 4개영역의 접촉을 총 10분 동안 제공하며, 반응을 유도하는 메시지에 따라 대상자는 12단계의 체계적인 감각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 진행을 위하여 서울 Y의료원 IRB 승인(승인번호: 4-2008-0382)후 간호부와 분만실 파트장, 산부인과 과장, 소아과 과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박혜란(2008)의 중재를 수정 보완하여 2008년 9월 예비조사를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 2인을 선정하여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확인 하였다. 예비 조사결과 분만 직후 10분간의 접촉을 수행하는 것이 신생아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주지 않으며 분만실 간호사가 산모와 신생아 간호를 수행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시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접촉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반응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정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였다. 예비 조사를 거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10 월1 일부터 11 월20 일 까지 수집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와 대상자인 남편에게 연구자가 설명하여 아버지의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실험처치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신생아의 건강사정(아프가 점수 측정), 기도관리, 체대간호, 체온관리, 신체검진, 신분확인 등의 통상적 간호를 수행하였고 실험군에는 추가적으로 훈련된 연구 보조원에 의해 분만직후 30분 내 10분간의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연구 보조원은 분만실 경력 3년 이상 간호사 5인으로, 연구자는 실험 처치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만실 간호사 5인에게

2007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2회 실시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자가 산모와 대상자인 남편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

감각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 소개	
목표:	신생아와 그 아버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분만 직후 감각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시기:	분만 후 30분 이내
시간:	10분간

감각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 진행		
	중재 제공자	중재 수행자
도입	아기쪽으로 아기 아버지를 유도한다. “축하드립니다. 아기를 만나보세요.”	산모곁에서 아기 쪽으로 온다.
전개	1. 시각적 접촉(2분) 반응유도: “아기를 보세요”	① 아기를 몸 곳곳을 두루 살펴본다. ② 아기와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를 한다. ③ 아기의 행동을 관찰 한다.
	2. 언어적 접촉(2분) 반응유도: “아기를 불러 보세요”	④ 아기의 태명이나 이름을 불러본다. ⑤ 아기에게 말을 걸어본다.
	3. 촉각적 접촉(4분) 반응유도: “아기를 만져 보세요 ” “아기를 안아 보세요” 아기를 안겨줌	⑥ 아기의 사지나 머리를 손끝으로 만져본다. ⑦ 아기의 몸체를 손끝으로 만져 본다. ⑧ 아기를 손가락으로 만져 본다. ⑨ 아기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본다. ⑩ 아기를 안아 본다.
	4. 닮은 부분 찾기(2분) 반응유도: “아기는 누구를 닮았나요?”	⑪ 아기와 자신의 닮은 부분에 대해 말한다. ⑫ 아기와 아내의 닮은 부분에 대해 말한다.
종료	“아기 확인을 위하여 함께 신생아실로 가겠습니다.”	간호사와 아기와 함께 분만장을 출발한다.

3) 사후조사

사후 조사 시기는 분만 후 24~48시간 이내로 하였다. Greenberg & Morris(1974)가 부아결속과 관련된 행위를 확인하고 첫 3일간의 아버지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근거하였으며, 처치자의 Halo effect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 조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충분히 교육받은 산과 병실 간호사가 대상자가 어느 군에 배정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임신과정 특성, 분만관련 특성은 χ^2 -test, t-test를 사용하여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원부성과 원모성의 애착정도와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유무에 따른 부성애착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 특성과 관련된 부성애착점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상자간의 일반적인 특성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중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대는 대부분 30대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상자의 직업 상태를 비교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대부분 정규직이었으며, 실험군은 53.1%가 기독교이고 대조군의 절반 이상이 무교로 나타났으나 두 집간의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80% 정도가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

또한 대상자 대부분이 부부만 사는 핵가족 형태였으며, 결혼 기간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이 1~4년이였다. 이상의 두 집단간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인구학적 동질성 검증

n=62

특 성	구 분	실험군 n(%)	대조군 n(%)	χ^2	P
연 령	20대	5(15.6)	0(0.0)	5.11	.077
	30대	22(68.8)	24(80.0)		
	40대	5(15.6)	6(20.0)		
종 교	기독교	17(53.1)	9(30.0)	5.86	.118
	천주교	3(9.4)	3(10.0)		
	불교	3(9.4)	1(3.3)		
	기타	9(28.1)	17(56.7)		
교육정도	고졸	3(9.4)	4(13.3)	.91	.635
	대졸	17(53.1)	18(60.0)		
	대졸 이상	12(37.5)	8(26.7)		
직업상태	정규직	26(81.3)	28(93.3)	2.01	.156
	비정규직	6(18.8)	2(6.7)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29(90.6)	25(83.3)	.73	.392
	부모님과 동거	3(9.4)	5(16.7)		
결혼기간	1년 미만	4(12.5)	2(6.7)	3.40	.182
	1년~4년 미만	21(65.6)	15(50.0)		
	4년 이상	7(21.9)	13(43.3)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 먼저 임신계획은 실험군의 81.3%, 대조군의 70.0%가 사전에 부부가 함께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 기간 동안 출산준비교실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40%정도가 참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태담을 수행한 비율은 높아서 실험군 29명(90.6%), 대조군 25명(83.3%)가 그렇다고 하였다<표 3>.

<표 3>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 동질성 검증

n=62					
특 성	구 분	실험군 n(%)	대조군 n(%)	χ^2	P
임신계획	계획 안했음	6(18.8)	9(130.0)	1.07	.301
	계획함	26(81.3)	21(70.0)		
출산준비교실	참석안함	19(59.4)	19(63.3)	.102	.749
	참석함	13(40.6)	11(36.7)		
태담	거의 하지 않음	3(9.4)	5(16.7)	.733	.392
	수행함	29(90.6)	25(83.3)		

다음으로 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 조사결과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딸 또는 아들의 특정성별을 기대하는 사람은 35% 미만으로 특히 딸을 기대한다는 사람이 실험군의 경우 6명(18.8%), 대조군 6명(20.2%)로 아들을 기대한다는 사람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분만 후 모자별실선택 유형은 실험군의 84.4%(27명), 대조군의 93.3%(28명)이 모자별실을 선택하였다.

두 집단간의 원부모애착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원부모애착은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08$, $p=.318$; $t=-1.637$, $p=.107$).

<표 4> 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 동질성 검증

n=62

특 성	구 분	실험군 n(%)	대조군 n(%)	χ^2 or t	p
기대성별	딸	6(18.8)	6(20.0)	1.97	.160
	아들	2(6.3)	5(16.7)		
	상관없음	24(75.0)	19(63.3)		
아기성별	딸	14(43.8)	8(26.7)	1.97	.160
	아들	18(56.3)	22(73.3)		
병실종류	모자동실	5(15.6)	2(6.7)	1.24	.265
	모자별실	27(84.4)	28(93.3)		
원부모애착	원부성애착	18.84±5.23	20.17±5.09	-1.008	.318
	원모성애착	21.56±5.17	23.47±3.84	-1.637	.107

2. 가설 검증

제 1가설: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성애착 정도가 높을 것이다.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부성애착을 측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실험군의 부성애착(범위: 20~80점)은 평균 71.13점, 대조군은 71.33점으로 두 군 모두 높게 측정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감각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성 애착 점수를 비교한 결과,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2, p=.908$). 그러므로 제1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부성애착 속성별 문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5>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유무에 따른 부성애착 속성별 차이 검증

n=62

속 성(문항수)	점수 범위	실험군 Mean±SD	대조군 Mean±SD	t	p
시각적 인식(5)	5~20	18.28±1.76	17.97±2.06	.65	.520
촉각적 인식(3)	3~12	10.75±1.32	10.67±1.45	.24	.813
아기의 특성구분(2)	2~8	6.94±.88	7.23±.90	-1.31	.195
완전한 개체로 인식(1)	1~4	3.44±.56	3.50±.57	-.43	.667
강한 관심과 애정(3)	3~12	10.97±1.20	11.0±1.29	-.10	.922
심리적 고양감(3)	3~12	10.69±1.06	10.40±1.35	.93	.354
역할 인식(3)	3~12	10.06±1.29	10.57±1.41	-1.47	.138

제 2가설: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은 그렇지 않은 군과 부성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원부성애착의 평균점수 19.48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 이하그룹과 평균점수 이상인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별로 부성애착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의 부성애착 점수는 평균 73.38±6.26점이었고, 원부성애착이 낮은 군의 부성애착 점수는 평균 69.33±7.17점으로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이 부성애착 점수가 높았으며, 두 그룹의 부성애착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5, p=.022$). 그러므로 제2가설은 지지 되었다.

<표 6> 원부성애착과 부성애착

n=62				
구 분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 Mean±SD	원 부성애착이 낮은 군 Mean±SD	t	p
부성애착	73.38±6.26	69.33±7.17	-2.35	.022

제 3가설: 원 모성애착이 높은 군은 그렇지 않은 군과 부성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원모성애착의 평균점수 22.48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 이하그룹과 평균점수 이상인 그룹을 나누고, 평균점수 그룹별로 부성애착을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원모성애착이 높은 군의 부성애착 점수는 평균 72.36±6.44점이었고, 원모성애착이 낮은 군의 부성애착 점수는 평균 69.93±7.51점으로 원모성애착이 높은 군이 부성애착 점수도 높았으나, 두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8, p=.175). 그러므로 제3 가설은 지지 되지 않았다.

<표 7> 원모성애착과 부성애착

n=62				
구 분	원부성애착이 높은 군 Mean±SD	원 부성애착이 낮은 군 Mean±SD	t	p
부성애착	72.36±6.44	69.93±7.51	-1.37	.175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 정도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신 및 분만관련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을 살펴보면, 연령을 제외한 종교, 교육정도, 직업 상태, 가족형태 및 결혼기간 변수는 부성애착 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성애착이 증가하여 40대 이상의 부성애착점수는 20대와 30대에 비해 6점정도 높았으며, 연령별 부성애착은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64$, $p=.032$). 연령군별 부성애착점수의 사후검정은 표본수가 적어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결혼기간이 1~4년 미만인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부성애착점수가 높았으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8>.

다음으로 임신과 분만관련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을 살펴보면, 임신관련 특성과 분만관련 특성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표 9>.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정도 비교

n=62

특 성	구 분	Mean±SD	t or F	p
연령	20대	70.40±8.44	3.64	.032
	30대	70.13±6.80		
	40대 이상	76.18±5.47		
종교	기독교	73.19±6.26	2.02	.120
	천주교	69.50±5.32		
	불교	74.75±2.87		
	기타	69.11±7.91		
교육정도	고졸	70.71±9.89	.08	.923
	대졸	71.54±7.05		
	대졸이상	70.85±6.12		
직업상태	정규직	71.39±7.13	.47	.638
	비정규직	70.12±6.46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70.78±6.95	-1.32	.193
	부모님과 동거	74.25±7.07		
결혼기간	1년 미만	69.50±7.12	2.67	.078
	1년~4년 미만	72.91±5.86		
	4년~7년 미만	68.70±8.24		

<표 9> 대상자의 임신 및 분만관련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정도 비교

n=62

특 성	구 분	Mean±SD	t or F	p
임신계획 유무	안했음	68.33±7.23	1.87	.066
	계획함	72.14±6.75		
출산준비교실	참석안함	70.92±7.13	.42	.670
	참석함	71.70±6.92		
태담	거의 하지 않음	70.50±7.82	.415	.662
	가끔 함	71.10±7.04		
	규칙적으로 함	74.25±5.50		
분만참여	안했음	70.85±7.50	-.29	.773
	참여함	71.40±6.84		
기대성별	딸	70.25±5.83	.73	.482
	아들	74.14±6.31		
	상관없음	71.02±7.41		
아기 성별	딸	71.05±6.57	-.15	.882
	아들	71.33±7.31		

4. 추가분석

참여 대상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으로 “기분이 어떠세요?”를 묻고 반응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내용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아기를 안아 볼 때 아기를 떨어트릴까봐 불안 했어요”

“설문문항을 작성하는 동안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를 상상하는 순간이 행복 하였다”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아버지의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신생아 아버지 자신 부모와의 유대가 신생아의 부성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프로그램은 분만직후 30분 내에 10분간의 감각적 경험을 유도하는 것으로 박혜란(2008)이 개발한 것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정도는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감각적 접촉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성애착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부성애착 점수가 높은 군에서는 부성애착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과 부성애착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특성과 부성애착

본 연구에서 24시간이후 측정한 부성애착점수는 실험군 71.13 ± 6.50 점, 대조군 71.33 ± 7.62 점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성애착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박혜란(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와 많은 유사점이 있는 Toney(1982)의 정상신생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촉각적 접촉인 안아주기를 분만 1시간 이내에 10분간 중재를 적용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부성애착 행위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 것과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고(88.7%), 대부분이 정규직(87.1%)이었다. 대상자들의 학력과 직업상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분만 직후 수분에서 수 시간 내의 접촉이 애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

한 Klaus와 Kennell(1976)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미국 흑인이었으며 낮은 사회경제학적 계층에 속하고 고졸이나 더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부성애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t=3.64, p=0.032$), 제한된 표본수로 인해 사후 검정은 불가 하였다. May(1982)는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부성애착이 높았고 김지영(1994)과 박교정(199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지현(2002)과 박혜란(2008)의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부성애착 점수가 유의하지 않아서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이 관련한 영향은 앞으로 더 연구하여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신생아의 아버지 전수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시차를 두고 표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장소가 3차 종합병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이 선택하는 상급의료기관이며, 이미 부성애착에 대한 관심, 의지 등이 selection bias로 작용가능성이 있다. 또한 50여일간의 측정기간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 산모를 제외하여 전수임에도 불구하고 실험군이 32명, 대조군이 30명으로 대상인원이 충족되지 못하다는 제한점을 고려해야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학력, 사회경제적 계층이 포함되고, 충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감각적 접촉의 적절한 시간을 위해 아기 만출 직후부터 아기가 신생아실로 가기까지의 시간을 평균 30분으로 규정하였다. 분만실 간호사가 아기뿐 아니라 산모 간호 등 다양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10분으로 정형화 하였고, 부성애착 증진을 위해 중재를 적용한 박혜란(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재 프로그램 시간에 근거하여 분만 직후 약 10분간의 감각적 접

측으로 분만실에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1회의 중재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윤희자(2005)의 연구에서 10분간 조기 접촉을 수행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성애착행위가 유의하게 높았고, 박시영(2003)연구를 보면 미숙아에게 아버지의 촉각 자극을 통하여 아버지의 애착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 결과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부성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임신과 분만에 대한 경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 임신중기 이후에 태동을 느끼며 분만을 직접 체험하는 것에 반해 남성은 임신이나 분만에 대한 간접 경험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분만 후 같은 시간을 접촉했다 하더라도 애착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애착이 두 개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접촉의 시간만큼 접촉의 횟수도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접촉의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접촉과 다음 접촉 사이의 시간은 경험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애착은 개인의 내적실행모델에 영향을 받으며 그 전 세대의 영향으로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은 재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부성애착도 모성애착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며(Mercer,1988), 아버지의 아기를 향한 부성애착은 아기의 출생 전 임신기간 동안 태아와의 관계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비아버지들은 임부처럼 태아에게 친밀한 행동을 보이며 산전간호가 애착행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강남미, 1982; 차은주, 1985)와 초음파 등을 통한 태아 조기 접촉을 한 경우 아버지에게서 애착이 증가된다는 보고(Brown & Miller, 1980; Gibbd & Convington,1976)에서 알 수 있듯이 애착 형성을 돕고 분만 후 접촉을 통해 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과정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분만직후 뿐 아니라 이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산전, 분만 및 산욕기에서 간호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각 시기에 제한된 개별적 접근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이 분만직후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중재에서 사용된 감각적 접근을 지침으로 하여 산전부터 산후 입원기간 동안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중재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군에 속한 몇몇 대상자들의 감정상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아버지는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 적용시 눈물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아버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여 피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정과 관련된 자료는 자료 수집시에도 관찰되었는데, 한 신생아 아버지는 자신의 아기를 상상하는 것을 '행복한 순간'이라고 기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자들이 분만, 감각적 접촉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감정적 변화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변수로 포함하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애착점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Brown(1980)와 차은주(1985)는 임신계획성유무, 원하던 자녀수, 높은 결혼만족도, 짧은 결혼기간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애착형성이 잘된다고 하였다. 또한 Belsky(1996)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영아는 아버지와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첫째 아기인 경우 애착정도가 높으나, 신생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애착정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는데(김지영, 1994; 박교정, 1999), 차은주(1985), Lamb(1983), Toney(1982)등은 신생아가 아들인 경우 더 많은 애착행위를 보인다고 하였고, Jones과 Campell(1982)은 반대로 딸에게 높은 상호작용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기대, 또는 실제 신생아 성별과 부성애착 점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다른 변수인 분만형태에 따른 애착점수의 차이를 조사한 Toney(1982)의 연구에서는 정상분만보다 제왕절개시 신생아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만형태는 애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Fortier(1988), 강남미(1985)의 연구와 같았다.

그러나 감각적 접촉프로그램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 경제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아버지에게 감각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부성애착의 측정시기

선행 연구에서 보여진 부성애착 측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김지영(1994), 김지현(2002)의 연구에서는 분만 직후 적어도 1회 이상 신생아를 본 후 부성애착을 측정했다. 황은주(2003)의 연구에서는 분만 72시간 이내에 신생아를 적어도 1회 이상 본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성애착을 측정하였다. 또한 Gibbs와 Covington(1976)과 박혜란(2008)의 연구에서는 분만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성애착을 측정하는 시기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24시간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owen와 Miller(1980)에 의하면 출산 후 첫 3일간이 적절한 부성애착의 형성에 중요하며 민감한 시기라고 하였고, 현장에서는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보통 72시간 이내에 퇴원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자료 수집에 가장 용이하여 이 기간을 선택하게 되었다.

Rodholm(1979)은 아기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출생 직후 아기를 안아본 15명의 대상 아버지가 3개월 후에 더 많은 애착 행위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 하였으며, 박교정(1999)은 조기접촉 보다는 아기와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 접촉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추어 볼 때 부성애착 형성은 아버지와 신생아가 함께하며 아기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간을 갖고, 아버지 역할을 경험한 후 평가할 수 있도록 아기 출산 후 1개월이나 3개월 후로 측정횟수와 시기를 추가하는 시기를 1개월 후나 3개월 후에 측정해 보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원부성애착과 부성애착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와(원부성애착) 신생아에 대한 부성애착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35$ $p=.022$). 즉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커질수록 자식에 대한 부성애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지영과(1994)과 박교정(1999) 김지현(2002)연구에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애정을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부성애착이 높게 나와 이는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Bowlby(1979)가 “애착의 세대간 전이” 라고 하여 초기에 부모와 신생아간에 형성된 애착 관계는 이후 성인기까지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부모가 되었을 때도 자신이 형성한 내적 표상이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실무에서 분만 전에 예비 아버지의 원부성애착을 확인하여 점수가 낮은 경우 부성애착 형성 장애 요인이 됨을 고려하여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리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아버지의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아버지 자신의 부모와의 유대가 신생아의 부성애착에 대한 영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프로그램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재라는 큰 장점이 있다. 분만과정에서 간호사는 분만과정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부모와 신생아 사이의 애착형성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부성애착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오늘날 간호사 스스로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중재는 원부모 유대와 효과를 규명한 것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으며 간호 실무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기간은 2008년 10월1일부터 2008년 11월20일까지이며 서울 소재 Y 대학 부속 병원에서 분만한 신생아의 아버지 62명 전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임신관련 특성, 분만관련 특성을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은 아버지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64, p=.32$).

셋째,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성애착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1가설 '분만직후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성애착 정도가 높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t=0.12, p=.90$).

넷째, 원부성 애착 정도에 따른 부성애착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부성 애착이

높은 군이 그렇지 보다 부정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제 2가설 '원 부정애착이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은 부정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채택되었다($t=2.35$, $p=.02$).

다섯째, 원모성 애착 정도에 따른 부정애착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3가설 '원 모성애착이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은 부정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chi^2=1.37$, $p=.175$)

본 연구에서 중재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감각적 접촉 프로그램의 적용시간과 횟수 부정애착 측정 시기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추측 되어 진다.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부정애착 측정시기를 달리하고 애착 중재 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평가도 포함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의 대상자를 포함하고 표본수를 늘리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분만직후 감각적 중재 제공 후 1개월, 3개월 등 후속적으로 부성애착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중재의 횟수와 시기를 강화하여 실무에서 산전, 분만 중 및 산후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재로 확장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네 번째, 중재 후 아버지의 감정적 애착을 측정하는 정서적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신시 원부성애착과 원모성애착을 확인 하여 점수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의 부성애착 형성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남미. 아버지의 산전간호 참여도와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 인식도와 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 강남미. 부성역할의 간호중재 원리에 관한 문헌연구. 대한간호 1988; 7(5) : 67~78
- 강남미. 부성전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연구 1994; 2(2) : 207~228
- 강남미. 부성전환 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적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강남미. 부성전환과정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자녀수에 따른 비교연구. 스트레스 연구 1997; 5(1) : 1~15
- 김지영.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원, 1986
- 김영희. 아버지의 영아돌봄에 관한 문헌연구.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988; 1(1) : 75~87
- 김영희.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원, 1998
- 김지영.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김지현. 고위험 신생아 아버지와 정상신생아 아버지의 애착 정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2
- 박교정.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 비교.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 대학원, 1999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등. 부모-자녀관계-생태학적 접근. 학지사, 1996
- 박시영. 미숙아 아버지 촉각적 접촉을 아버지의 애착 정도. 석사학위논문, 2002
- 박혜란.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2008
- 박혜숙. 신생아 돌보기 활동이 산모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83
- 송지영. 한국판 부모 자녀 결합 형태 검사-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1992; 31(5) : 979~989
- 양명숙. 부모 전환기 에서의 역할 연구: 부모 역할관에 대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중심으로. 대한 가정 학회지 1993; 31(4) :53-66

- 윤희자. 조기 접촉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 간호학과, 2005
- 이자형, 김지향.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 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1; 11(2) : 9~21
- 이자형, 금진향. 모아의 조기접촉이 모아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원 논총 1981; 28 : 161~170
- 이인길. 취학 전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원광 대학교 대학원, 1992
- 이숙현.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의복선택과의 과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부산 대학교, 1985
- 임정아. 산후 아버지교실이 산육기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의 지식정도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02
- 장순복, 최연순, 박소미, 전은미. 임신 계획여부와 임부 태아 애착 정도. 연세대 간호학 논문 1991; 14 : 47-61
- 차은주. 아버지의 산전교육이 신생아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최혜숙. 아버지역할에 대한 이해. 연세학술논집 1997, 25(1)
- 최인희. 모아 조기접촉이 어머니 역할획득과 애착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황은주. 아버지의 가족분만 참여유무에 따른 부성애착과 역할자신감의 비교. 석사 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3
- Abelin, E.L. Some further observation and commands on the earliest role of the father. *Int J Psychoanal* 1975; 56 : 293~302.
- Ainsworth. M.D.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Edited by Caldwell. B. and Riccuit, H.N., 198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Armsden, G.C. &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y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987; 16(5): 427~453
- Bowen, S.M & Miller, B.C. Paternal attachment behavior as related to presence at delivery and preparenthood classes. *Nurs Res* 1980; 29(5) : 307~310.

- Bowlby, J.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Inc., 1969
- Bowlby, J. Attachment an d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 J Orthopsychiatry 1985; 52(4) : 664~678
- Bowlby, J.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1988
- Brown, M.A. Social Support, stress and health: A comparison of expectant mothers and fathers. Nurs Res 1986; 35(2): 72~76
- Brown, S.M. & Miller, B.C. Paternal attachment behavior as the related to presence at delivery and preparenthood classes : A pilot study. Nurs Res. 1986; 29(5) : 307~311
- Clark, M., Ghandour, G., & Houston, M.N. et al.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computer-based system for dietary management of hyperlipidemia. J Am Diet Assoc 1997; 97(2) : 146-150
- Cranley, M.S.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 Res 1981; 30(5) : 281~285
- Cronenwett, L, and Newmark, L. Fathers' response to childbirth. Nurs Res 1974; 23 : 210~217
- Cropley, C. et al.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Current Practice in Obstetrics and Gynecologic Nursing. St. Louis: The C.V. Mosby Co., 1976
- Earls, F. The fathers (not mother). Psychiatry 1976, 29. 209~22
- Ferketich, S.L. & Mercer, R.T. Predictors of Role Competence for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Fathers. Nurs Res 1995; 44(2) : 89~95
- Fortier, J.C. The Relationship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s to Father-Infant. Neonatal Netw 1988; 19(5) : 15~23
- Gamsa, A.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1987; 121 : 241~258.
- Greenberg, M. & Morris. N. Engrossment: the newborn's impact upon the father. Am J Orthopsychiatry 1974; 44(4) : 520~531.
- Klaus, M.H. & Kennell, J.H. Maternal-infant bonding. Saint Louis: The C.V. Mosby Co., 1976

- Lamb, M.E. & Sagi,A. *Fatherhood and family policy*(Ed). Illsdale, NJ : Eribaum, 1983
- Leonard, S.W. How first-time fathers feel toward their newborns. *Am J Matern Child Nurs* 1976; 13(2) : 103~112
- May, K. A. Three phases of father involvement in pregnancy. *Nurs Res* 1982; 31(6) : 337~342
- Mercer, R.T. and S.L. Ferketich. Predictors of paternal attachment during early parenthood. *J Adv Nurs* 1990; 15(3) : 268~280.
- Mercer, R.T., Rerketich,S., May,K.S., de Joseph, J. & Solid, D. Further explor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fetal attachment. *Res Nurs Health* 1990; 11 : 83~95
- Mercer, R.T., Rerketich,S., May,K.S., deJoseph,J, and Solid, D. Effect of stress on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gnancy. *Nurs Res* 1988; 37(5) : 269~275
- Novac, J.C. Facilitating nurturant fathering beghavior in the NICU. *J Perinat Neonatal Nurs* 1990; 4(2) : 68~77.
- Jones, L.C. & Lens, E.R. Father-Newborn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Infant care. *Nurs Res* 1986; 35(3) : 149~153.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1979; 52 : 1~10
- Parke, R.D. and D.B. Sawin. The fathers role in infancy evaluation. *Fam Coord* 1976; 25 : 365~371
- Peterson, G, Mehl, L, Leiferman, H. The role of some birth related variables in father attachment. *Am J Orthopsychiatry* 1979; 49(2) : 330~336
- Rodholm, M. Effects of father-infant postpartum contact on their interaction 3 months after birth. *Early Hum Dev* 1981; 5(1) : 79~85.
- Styron, T. & Janoff-Bulmam, R.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1967*
- Toney, L. The effects of holding the newborn at delivery on paternal bonding. *Nurs Res* 1983; 32(1) : 16~19.
- Wieser, M. & P.Castigia. Assessing early father-infant attachment. *Am J Matern Child Nurs* 1984; 9(2) : 104~106.

부 록

(부록 1)

시각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기와 눈을 맞추려 노력한다. 7. 아기의 몸을 두루 살펴보고 싶다. 11. 아기를 볼때 웃거나 말하게 된다. 13. 나의 아기가 자랑스럽다. 17. 나의 아기가 예쁘다.
촉각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아기를 만지고 싶다. 12. 아기와 함께 있고 싶다. 18. 아기에게 입 맞추고 싶다.
아기의 특성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아기는 나 혹은 가족을 닮았다. 19. 아기가 정말 내아기라고 느껴진다.
완전한 개체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아기를 부르면서 얘기를 한다. (“아가야” 혹은 이름이나 애칭으로)
강한 관심과 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아기에게 금방 정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16. 아기가 자꾸 보고 싶다. 20.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는지 궁금하다.
심리적 고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아기가 있어 기쁘다. 9. 아기가 태생으로 자신감이 증가 되지는 않는다. 13. 나의 아기가 자랑스럽다.
역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나는 아버지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10. 나는 아직 이아기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4. 아기를 볼 때 웃거나 말하게 된다.

(부록2) 설문지

분 만 일 시	월 일 시
설문지 작성일시	월 일 시

아버지의 아기 접촉 참여 동의서

소중한 아기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분만실에서 분만하는 예비 아버지들에게 태어난 아기와 감각적 접촉을 허용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와 자녀관계는 어머니·자녀 관계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자녀 관계 능력은 아기 출산 직후부터 형성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아기에게 어떤 정서적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 여쭙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아버지·자녀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가 출생후 30분 이내에 시각적 접촉, 언어적 접촉, 촉각적 접촉, 닦은 부분 찾기 등의 감각적 접촉을 합니다. 이 경험에 참여를 원하시면 동의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아기의 건강과 귀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향후 아기양육 관계 의문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8 년 10 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전공

연구자 임 종 순

연락처 02)2228-9067, 019-297-6338

㉝ 귀하의 아기에 대한 느낌과 일치하는 내용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기와 눈을 맞추려 노력한다.				
2. 아기를 만지고 싶다.				
3. 아기는 나 혹은 가족을 닮았다.				
4. 아기에게 금방 정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5. 아기가 있어 기쁘다.				
6.나는 아버지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7. 아기의 몸을 두루 살펴보고 싶다 .				
8. 아기를 부르면서 얘기를 한다. (“아가야” 혹은 이름이나 애칭으로)				
9.아기의 탄생으로 자신감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10.나는 아직 이 아기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1. 아기를 볼 때 웃거나 말하게 된다.				
12. 아기와 함께 있고 싶다				
13 .나의 아기가 자랑스럽다.				
14.아기를 돌볼 자신이 있다.				
15.나의 아기를 볼 때 다른 아기를 볼 때와 느낌이 같다.				
16.아기가 자꾸 보고 싶다.				
17.나의 아기가 예쁘다.				
18.아기에게 입 맞추고 싶다.				
19.아기가 정말 내 아기라고 느껴진다.				
20.아기가 잘 먹고, 잘 자는지 궁금하다.				

나의 아버지는				내 용	나의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씀 하셨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를 도와 주셨다.				
				나에게 차갑게 대 하셨다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하셨다				
				나에게 자주 미소를 지으셨다				
				내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다,				
				내가 기분이 안좋을때 내 기분을 풀어 주셨다.				
				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다.				
				내가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게 하셨다.				
				나를 칭찬 하셨다.				

● 질문에 관하여 v표나 기록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 만 ____ 세
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3. 귀하의 교육 정도는 어떠합니까?
 고졸 대졸 대졸 이상
4. 귀하의 직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무직 시간제 근무 계약직 정규직
5. 귀하의 가족은 부부만 산다 기타 가족과 산다.
6. 결혼기간은? 만 ____년 ____개월이고 연애결혼 중매결혼 이다.
7. 임신을 계획하셨습니까?
 안했음 부부 중 한명이 계획함 부부가 함께 계획함
8. 출산 준비 교실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아니오 아내만 부부함께
9. 아내의 임신기간 동안 태담을 하셨습니까?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하였다 자주 하였다 규칙적으로 했다.
10. 분만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했음 진통 과정만 아기 출산시 진통과정과 아기 출산시
11. 귀하가 기대했던 아기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딸 아들 상관없음
12. 현재 아기의 성별 : 딸 아들
13. 아기를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분만 후 30분 이내
 분만 후 30분 - 4시간 이내
 분만 후 4시간 - 24시간 이내
14. 귀하가 이용하신 병실은 어떤 종류입니까?
 모자동실 모자별실

(부록 3) 피험자 서면 동의 설명문

피험자 서면동의 설명문

귀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고 받았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상에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 귀하가 참여하시게 되면 분만 후부터 30분 이내에 신생아와 조기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만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한 번의 설문지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본 연구는 약10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귀하께서 특별하게 해야 할 검사나, 시술, 준수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특별히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역시 없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므로 귀하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얻게되는 금전적 보상 또한 없습니다. 본 연구는 전적으로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본 연구를 거부 하신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를 포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연구자와 심의 위원회가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귀하의 아내와 아기의 의무기록에 접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는 한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의무 기록과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는 한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이는 본 연구결과가 출판 될 경우에 더 마찬가지입니다.

본연구에의 참여에 대한 귀하의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연구자가 귀하께 알려 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피험자 서면동의 설명문과 귀하가 사용한 동의서 각각의 사본을 받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연구 책임자 ; 김 수 연락처 010-7252-3077

연구 담당자 : 임종순 연락처 019-297-6338

02-2228-6300

(부록 4) 피험자 동의서

피험자 동의서

본인은 부성애착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또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기 연구에 참여 하기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 할 수 있음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8 년 월 일

연구참여자	성 명	(서명)
	주 소	
	연락처	

연구참여자	성 명	임 중 순 (서명)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 아파트 1108-325
	연락처	

(이하 해당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주 소	
	관 계	
	연락처	

ABSTRACT

The Effect of the Sensatory Contact Immediately after Birth on Paternal-Infant Attachment

Lim, Jong Soon
Major in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a control group post test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ensuous contact between neonate and its father shortly after delivery on paternal attac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hrough November 20, 2008 by sampling the fathers of the neonates born at the hospital annexed to 'Y' university in Seoul. The subjects were brief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soon as their wives were hospitalized and thereby, signed the agreement to the survey. The sample was divided into test and control groups arbitrarily at some intervals. Park Hye-ran's 'Sensuous Contact Intervention Program'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a preliminary survey.

The control group were subject to the sensuous contract program for 10 minutes within 30 minutes after delivery, while the neonates were being nursed ordinarily. And the intervention program was operated by 5 delivery room nurses trained. On the other hand, the ordinary nursing services were given to the control group and their neonates.

24 hours after delivery, the delivery room nurses who had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during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distributed th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to both groups, while they could not make distinction between two groups, and then, collected the data.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12.0 program for T-test about homogeneity of two groups and ANOVA about difference of the paternal attachment between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a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gnancy-related or delivery-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amely, the two groups were homogeneous.

In terms of demographic variables, those fathers aged 40 or older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paternal attachment. ($\chi^2 = 3.64$, $p = 0.32$).

The hypothesis that the test group subjected to the sensuous contact shortly after delivery would have higher paternal attachment than the control group was rejected. ($\chi^2 = 0.12$, $p = 0.90$).

The hypothesis that the group having higher attachment to their fathers would have higher paternal attachment to their newborn children was adopted. ($\chi^2 = 2.35$, $p = 0.02$).

The hypothesis that the group having higher attachment to their mothers would have higher paternal attachment to their newborn children was rejected. ($\chi^2 = 1.37$, $p = 0.175$).

The effects of the sensuous contact shortly after delivery on paternal attachment were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Such in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emed attributable to the

assumptions that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had affe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that the timing of measuring the paternal attachment was not optimized.

S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use the sample of more diverse demographic variables to repeatedly measure the effects of the sensuous contacts on paternal attachment in consideration of adequate timing and frequency of measurement.